



코로나19와 공존시대, 중국 식음료 트렌드는?

2020년 유례없던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었다. 처음엔 메르스처럼 금방 지나갈 것이라 생각했던 코로나19는 2022년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과 의식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대면접촉을 피하기 위한 비대면 재택근무는 이미 일상적 업무 방식의 하나로 자리 잡았고 마스크는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코로나19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을 대폭 강화시켰다. 평소에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비타민, 종합영양제 등 각종 건강기능식품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동시에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건강+환경'은 트렌드가 되었으며 이는 점차 소비자들의 소비 욕구에도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헬시즘(healthism)'과 '그리니즘(greenism)'은 소비자들이 가능한 자연 그대로 만들어 담은 친환경 식음료를 선택한다는 움직임의 반증일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중국의 식품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트렌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01 기능성 요구르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과거에는 언제든지 운동이나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었지만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재택근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제한적인 활동으로 인해 쉽게 잠들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스트레스 완화 및 수면 보조에 효과가 있는 영양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대체식품 생산사인 Pharma Linea에 따르면 아태지역에서 스트레스 해소 및 수면 보조작용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점유율이 2018년 0.5%에서 2021년 1.1%까지 증가했다고 한다. 또한 iiMedia Research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슬리포노믹스(수면경제)시장은 2,616억 위안(한화 약 50조 원)에서 3,778억 위안(한화 약 65조 원)로 44.4% 가량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유업(光明乳业)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수면장애와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아미노산 GABA와 강황(姜黄) 등을 첨가한 기능성 요구르트를 출시했는데 맛과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으며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반은 건강을 지키고 반은 쿨하게 건배합시다」라는 광고 문구가 적혀있다





「1,000억 마리의 유산균, 라는 광고 문구가 적혀있다

버섯 커피, 버섯 초콜릿 제품



02 유산균 제품

자주 감기에 걸린다거나 속이 안 좋다면 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의심해 봐야 한다. 최근 중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인체 면역체계의 60~80%를 장이 담당한다고 한다.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의 장 기능 개선에 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더불어 유산균시장 역시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몇 년 전 한국에서 유행했던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최근 중국에서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장 유익균 종류 중에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신바이오틱스가 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요구르트 등의 발효식품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성장을 촉진하거나 활성화시키는 성분이며,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혼합한 신바이오틱스 또한 새로운 3세대 유산균 제품으로 출시되고 있는 추세다.

세계적인 식품 제조기업 네슬레의 브랜드 Manthy는 최근에 대표적인 6종의 유산균을 함유한 '고체형 유산균 음료'를 선보였다. 한입에 "1,000억 마리의 유산균"이라는 슬로건과 선보인 이 제품은 D-리보스, 야콘 엑기스, 피코시아닌 등의 성분을

첨가하고 있으며 이 회사만의 특허기술로 유산균이 장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게 활성도를 높였다.

03 버섯 첨가 식품

버섯은 사실 곰팡이 덩어리로 독특한 영양분을 다양하게 갖고 있다. 미국 농업부에 따르면 버섯은 칼로리, 포화지방산, 나트륨 함유량이 낮으며 인체에서 생성할 수 없는 식이섬유, 칼륨, 비타민D 등의 영양분을 보충해 줄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버섯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식품 중 하나로 최근 버섯을 활용한 버섯 커피, 천연버섯 조미료, 버섯을 주재료로 만든 영양 보충제 등 다양한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Allied Market Research는 2020년 전 세계 기능성 버섯시장의 규모가 약 80억 달러에 달하며 2030년에는 약 19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버섯 첨가식품 역시 서서히 주목받고 있으며, 중국의 헬스케어 기업 Herbridge는 2022년 4월 21일에 개최하는 'FFNS 2022 미래 영양소 포럼'에서 '버섯 영양 시대' 테마를 따로 준비했다. 기능성 버섯에 대한 중국 내 관심도가 점차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작성자 | 다렌지사 오설매

Key Point

장기적인 코로나19와 친환경을 추구하는 기조의 영향을 받아 전 세계는 그리니즘과 헬시즘이 트렌드가 되었고 이러한 트렌드는 어느새 중국 내에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저칼로리 식품, 유기농 식품, 건강한 인스턴트 등 식품 자체에 대한 품질이 강조되는 것이 지난해 식품 트렌드였다면 올해는 식품 자체의 품질을 뛰어넘어 영양성분까지 고려하는 더욱 세분화된 시장이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